

종합·해설

“목표는 정권교체” 박지원 ‘정치 올인’

여 대권주자들이 잇단 ‘호남행’

박근혜·정몽준·이재오 지역 민심잡기 행보 본격화

1년 임기 원내대표 도전 강행 배경 관심 증폭

승패따라 당내 위상·대선정국 영향력 갈릴듯

친노 지원 과반득표 여부 속 후보단일화 변수

박지원 민주당통합 최고위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물론 민주당통합 내부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도전은 박지원 최고위원의 정치적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을 앞두고 당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경륜 등을 토대로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최고위원의 원내대표 도전 강행 배경에는 나이(70)와 시기(대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 측은 “박 최고위원이 단순히 1년 임기의 원내대표 하려고 당내 비판을 무릅쓰고 출마했느냐”고 반문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부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당권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노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곤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박지원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박 최고위원의 정치적 명운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박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지난 통합 과정과



지도부 경선에서 상처를 입었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선 정국을 주도지휘하는 김-메이커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호남 정치권 수장의 위치를 넘어 민주당통합 내에서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선 패배는 박 최고위원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명분에서 밀리는 도정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좀처럼 정치적 입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호남은 물론 당내에서도 말발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선 구도는 친노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 최고위원이 타 후보들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과반 득표(64표) 여부도 관건이다.

박 최고위원이 19대 국회 당선자 127명이 참여하는 표결에서 과반 이상을 얻으면 원내대표로 직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등과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찬 당선자 등 친노 그룹이 25명 안팎, 박 최고위원 지지 그룹이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의 달인이던 당선자와 박 최고위원이 막판 표 단속에 나서면 60표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선 구도는 복잡해진다. 누가 2위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판세가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락 후보들의 표를 누가,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후보단일화도 변수다.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전병헌, 유인태 의원은 이미 후보단일화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지지 의원들의 단일화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박지원-이해찬 조합에 불편한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통합 대선 주자들의 입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이 ‘호남 구애’를 본격화하고 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고선 연말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호남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에 광주·전남지역을 방문, 광주·전남 총선공약실천본부 발족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현장과 재개발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찾은 계획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강원 민생탐방을 시작으로 충청권(25일), 경기-인천(26일), 부산·경남(27일)을 각각 방문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자리에서 전국 민생 탐방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번 전국 투어의 주제를 화합으로 잡고 호남에서 출발해 영남으로 가는 일정을 짜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해 호남 전역을 3~4일에 걸쳐 돌고, 다음으로 부산-울산 등으로 건너간다는 계획이다.

정 전 대표가 첫 방문지로 호남을 검토하는 것은 여당의 불모지인 호남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호남지역 정당 지지율은 광주 5.64%, 전북 9.64%, 전남 6.33%에 그쳤다.

앞서 지난 28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구례의 한 마을을 방문, 도로변과 공방에서 제조작업을 하는 등 농촌총화활동을 벌였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부산 민생탐방을 시작으로 대구 달성(26일)-충북 청주와 전북 익산(27일) 등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까지 경남-충청-경기-강원권 등 언론 노출을 피한 채 지역 마을회관 등에서 지역사냥은 자제하고 전국을 돌면서 지켜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호남을 끌어안아야만 전국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대선 승리로 가능하다. 당분간 대권 주자들의 호남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몸싸움 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여야 의원 10명

여야 의원 10명이 의안처리과정 개선과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국회바로세우기의원도 임 소속인 남경필·구상찬·김세연·홍정욱·황영철 의원과 민주당통합 민주당국회운영모임 소속인 박상찬·김성곤·원혜영·정장선·김춘진 의원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18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은 이번 18대 국회를 대화·타협·소통·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쇠사슬·해마·전기톱·최루탄·몸싸움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일각에서는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며 “발목 잡기에 대한 직권상정, 직권상정에 대한 육탄방어로 몸싸움이 반복됐던 18대 국회가 사실상 식물국회였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r

“국민경선 도입 원포인트 회담 갖자”

문성근, 국민경선 반대 박근혜에 제안

민주당통합 문성근 대표대행이 29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위해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원포인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구는 인류사적 흐름으로, 이 변화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들이 완전국민경선을 요구한 데 대해 “선두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측면도 분명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2002년에도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맞춰왔으나 새누리당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성 안의 정당으로 활동해 왔다”며 “여당 내 논란은 국민의 요구에 비아하로 응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박 위원장을 겨냥, “10년 전에 ‘상대편’ 당인 민주당에서

국민참여경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고 탈당한 분 아니냐”며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완전국민경선) 안 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법과 제도를 국민여론이 나서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게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국민적 요구가 분명해에도 예전의 제도를 금과옥조로 붙들고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

진 정치인”이라고 박 위원장을 압박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완전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국민경선으로 안 원장에게 불리할 게 없다”면서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단일화를 요구하면 500만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대선후보는 반드시 완전국민경선으로 선출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하면 500만 명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참가자들의 권리와 연령 구가 분명해에도 예전의 제도를 금과옥조로 붙들고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새누리당 정몽준(MJ) 전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만든 것은 정치 지도자보다 위대한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사회양극화 심화, 정

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문제제기는 있지만 해법은 없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치인들에 대해선 “뜨거워 가슴과 차가운 머리의 정치는 실종됐고, 차가운 가슴과 뜨거운 머리의 포퓰리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정치권력과 부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대지/임야/전답' and '건물'.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건물' and '기타'.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sub-sections for '건물' and '기타'.

광주지방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이영복